

#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 계 숙(경희대 부교수) · 강 수 향(경희대 석사과정)  
오 아 립(경희대 석사과정) · 이 주 현(경희대 석사과정)

맞벌이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가사분담에 대한 부부의 태도 및 지각과 개인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가 되었다하더라도 다수의 연구가 만족도 차이보다는 공평성 지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지각하는 가사분담 투자비율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198쌍이다.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Demaris와 Longmore(1996), Kulik(1999)의 연구를 기초로 강기연(2000)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의사소통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ienvenu(1970)의 부부 의사소통 척도(MCI: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가사분담투자비율 및 가사분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가사분담투자비율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부인: 100% 전담, 남편: 0% 전담(1점)’-‘부인: 0% 전담, 남편: 100% 전담(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인의 가사분담 투자비율이 높다고,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분담 투자비율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사분담 만족도는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은 대응표본 t 검정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다소 평등적이었고, 맞벌이 부부는 자신들이 비교적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며, 가사분담과 결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인은 남편보다 더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부인이 지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사분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은 부인보다 가사분담과 결혼생활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남편은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을수록, 가사분담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은 자신의 만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 차이가 적을수록, 가사분담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기존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남편의 가사분담 시간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더 나아가 부부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가사분담에 대한 부부의 지각차이나 만족도 등을 부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며 부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